논문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역사기록전시

- 기록으로 보는 한국불교와 조계종 -

김재훈* · 이경훈**

1. 머리말
2. 전시의 기획
3. 전시대상 기록물의 선별
4. 전시 실무과정
5. 전시경과
6. 맺음말: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국문초록]

기록을 관리하는 궁극의 목적은 이용 제공에 있다. 기록물전시회는 기록관 및 기록관리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미지의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아키비스트에게는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개괄적인 분류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중앙기록관 기록관운영팀 주임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중앙기록관 기록관운영팀 주임

록전시의 기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전시회를 개최한 기관 및 단체는 아직 많지 않은 형편이다.

본고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의 역사기록전시 사례를 바탕으로 전시기획, 기록물 선별 및 전시 실제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기록전시의 참고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역사기록, 기록전시, 이용제공, 전시회, 전시기획, 기록물선별, 전시실무

1. 머리말

각급의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관)에서 기록을 관리하는 궁극의 목적은 그 이용에 있다. 기록물은 여러 이용자에게 제공되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기록관이 소장 기록물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또 보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록관은 미지의 이용자를 위하여 검색도구를 개발하거나, 목록집을 발간하고 혹은 복본을 제작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아키비스트 또는 기록관의 이용제공(reference service)은 특정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서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흔히 기록물관리는 모(母)기관의 역사를 구체적이고 개관적으로 규명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일컫는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관은 박물관, 도서관과 함께 어느 나라, 어느 지방, 혹은 어느 단체의 핵심 문화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열람서비스의 제공만으로는 아직 척박한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 실태에

비추어 봤을 때 기록관에 대한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기 힘들다.

아직까지 국민의 대다수는 기록학이라는 학문에 대하여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기록관이라는 조직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에서 주최하는 어떤 조직, 단체에 대한 역사기록전시는 기록관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학 또는 기록물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역사기록전시는 기록관이 불특정 다수에게 가장 쉽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기록관의 모기관 업무담당자나 외부의 일부 역사연구자를 제외한 일반대중들은 기록관에서 보존하는 실제 기록물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이는 기록관의 업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일반인이 기록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역사기록전시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해당 기록관에서 소장된 기록물을 열람하게 된다면, 이들은 기록관뿐만 아니라 모기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기록관의 존재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현재 범국가적으로 업무혁신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기록물관리 혁신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도 주요 혁신과제로 선정할 만큼 업무혁신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1]. 기록관리 분야에 있어서 혁신은 매우 전방위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근대적 개념의 기록관리 역사가 일천한 경우에는 거의 모든 영역이 혁신의 대상이 된다.

---

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혁신관리분야 참조.
http://www.innovation.go.kr/committee/record_work.htm

기록관에서 주최하는 소장기록물 전시도 기록관리 영역에서 하나의 업무 혁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기록관에 방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전시회 등을 통하여 홍보함으로써, 기록관 및 기록관리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은 기록물의 이용에 대하여 기록관이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기록전시회는 이와 함께 아키비스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한다.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혹은 관리대상의 범주에 속하는- 기록물들에 대하여 속성으로 1차적인 분류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에 설치된 대다수 기록관은 역사가 짧고, 따라서 소장하는 기록물의 양은 일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키비스트는 짧은 시간 내에 소장기록물에 대한 분류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기록전시회라는 특정 행사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장기록물에 대해 구체적인 분류·평가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소속 기관의 역사를 통찰하여 중요한 기록물을 판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다. 소속기관의 역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록물을 발굴하고 기술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장기록물의 가치 및 보관상태에 대한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이하 중앙기록관)에서는 2001년부터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 목록전산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소장기록물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다. 특히 조계종의 경우 해방 이후부터 생산된 기록물을 대부분 보존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조계종 성립기[2]의 역사를 기록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근 5년에 걸친 소장기록물 목록정리사업을 통해 종단 소속 종무원[3]도 모르는 기록물을 다수 발굴할 수 있었다.

이에 중앙기록관에서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개관에 맞추어 발굴된 역사기록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자 2005년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기록물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본고에서는 중앙기록관 역사기록전시 「기록으로 보는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기획, 기록물 선별, 전시 실제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사진 1, 2〉 역사기록전시 당시의 전시장 전경

2. 전시의 기획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에서 개최한 역사기록전시는 두 가지 목

2) 불교사적으로 봤을 때 조계종성립기는 해방이후부터 1962년 당시 문교부에 종교단체로 등록할 때까지라고 할 수 있다.

3) 종무원은 교역직과 일반직, 특수직, 잡무직으로 구분된다. 교역직은 승려로서 종단에 봉사하는 자를 칭하고, 일반직과 잡무직은 불교신도로서 종단에 봉직하는 자를 말한다.(대한불교조계종 종무원법 제3조) 즉, 국가조직의 공무원, 기업체의 임직원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 첫 번째는 불교문화를 일반에게 널리 소개하는 것이다. 즉, 종단의 성립부터 조계종이 불교의 핵심종단으로서 발전하기까지의 조계종의 역사를 규명하고, 조계종의 역사와 정신, 비전을 불교 기록문화를 통하여 재구성하여 종단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종단의 대사회활동을 널리 알림으로써 종단의 사회적 기여 및 불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전환을 꾀하고, 한국현대불교 역사의 풍부한 사료 발굴을 통하여 불교사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종단 차원에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중앙기록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다. 대한불교조계종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설립목표를 대내외에 알리고, 종도의 신심을 고취시키며, 가치있는 기록의 생산주체로서 종무원의 책임감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중앙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물의 가치를 제고하여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소속원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방법으로 전시대상을 두 가지 테마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나는 조계종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배열하여 종단의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종단사에 대한 '연대기적 전시'이고, 또 하나는 조계종단이 단순한 종교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종단의 대사회활동을 네 가지 주제에 맞추어 전시하는 '주제별 전시'이다.

이 중 연대기적 전시는 애초에 '한국불교 1700년', '조계종의 재건과 중흥', '불교와 기록문화'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하려 하였다. '한국불교 1700년'에서는 한국불교의 연원을 밝히고, 역대고승과 그 업적을 기술

하고, 민족사 속에서 나타난 불교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계종의 재건과 중흥’에서는 근대 이후 조계종의 뿌리를 밝히고, 조계종의 재건과정과 역대 종정스님의 발자취, 종단의 중흥에 초점을 맞추어 전시를 구성하려하였다. ‘불교와 기록문화’에서는 불교역사 속의 기록유산과 불교문화 속에서 발현된 기록보존과 문화발전을 주제로 전시대상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주제별 전시는 ‘생활 속의 불교’, ‘참여불교’, ‘세계 속의 한국불교’, ‘내일의 불교’라는 네 가지 주제를 구상하였다. ‘생활 속의 불교’는 한국불교와 교육의 발전, 불교와 사회복지사업, 불교문화운동이라는 생활과 불교와의 관계를 밝히려 하였고, ‘참여불교’에서는 자연과 불교, 불교와 사회발전, 타 종교와의 대화 등 불교가 사회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활동한 제 사안들에 대하여 전시하고자 하였다. ‘세계 속의 한국불교’에서는 해외 포교와 세계화, 불교의 국제 교류, 북한과의 불교교류 등을 포함하고, ‘내일의 불교’에서는 지속가능사회와 불교, 불교와 문화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전시를 진행코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기적·주제별 전시 주제는 수차례에 걸친 기획회의와 기록물 선별의 과정에서 다소 수정되었다. 먼저 연대기적 전시를 진행함에 있어 한국불교의 1700년 역사를 소장기록물 중에서 전시대상 기록물을 선별해 낼 수 있느냐의 문제의식이 발생했다. 종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은 대체로 해방 이후부터 생산된 행정기록물이 대중을 이루었으며, 가장 오래된 기록물도 일제시기를 넘지 않았다. 각종 사찰이나 탑 등에서 발견된 경전이나 중수기, 해인사 팔만대장경 등 삼국시기, 고려시기 등에 생산된 중앙기록관 외부의 불교관련 기록물도 없지 않지만 실제 중앙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기록물을 전

시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실제 근대적인 의미의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종단이 사용하게 되는 시기도 일제시기[4]이었으므로, 전시대상과 전시시점을 일제시기 이후로 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주제별 전시에 있어서도 '내일의 불교'라고 하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따라서 아직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전시를 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기록전시를 함에 있어 '기록물의 관리대상은 실제 생산되고 활용된 원본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기본 명제에 어긋나는 '불교의 미래'라는 주제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네 가지의 각 주제가 갖는 무게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실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도 위의 네 분류로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하였다.

실제 중앙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전시를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주제는 변경하지는 않고, 각 테마별 소주제를 변경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먼저 연대기적 전시에서는 1895년 승려의 도성출입 허용부터 2005년 현재까지를 종단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시점으로 4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근대불교의 여명; 저항과 수호', '해방; 불교개혁의 첫걸음', '불교정화; 원융과 화합', '통합종단과 개혁'으로 주제를 결정하였다. 주제별 전시의 경우에는 '미래의 불교'라는 주제를 삭제하되, 현 시기 북한과의 불교교류가 활발한 점을 들어 이 부분을 특화하여 전시주제로 삼고자 하였다. 그래서 각 주제의 명칭은 '함께하는 불교', '행동하는 불교', '통일을 지향하는 불

4) 조선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은 1940년 본산주지회의에서 채택되었고,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은 1948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교', '세계로 뻗어가는 불교'로 하였다. 각 주제별 전시 내용과 실제 전시기록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초기 구상 전시주제		최종 전시주제
1부 : 종단사 한국불교 1700년 조계종의 재건과 중흥 불교와 기록문화	⇒	**1부; 되돌아보는 조계종의 숨결** 근대불교의 여명; 저항과 수호 해방; 불교정화의 첫걸음 불교정화; 원융과 화합 통합종단과 개혁
2부 : 종단활동사 생활속의 불교 참여불교 세계속의 불교 내일의 불교	⇒	**2부; 조계종과 우리의 삶** 함께하는 불교 행동하는 불교 통일을 지향하는 불교 세계로 뻗어가는 불교

〈표 1〉 전시주제의 변경

전시일정이나 개관기념 부대행사의 구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본래 기념관의 개관예정일은 9월 1일이었으며, 개관기념행사는 본 전시회뿐만 아니라 중앙박물관 특별전시회, 사찰음식문화축제, 개관기념 연극 및 음악공연 등 다채로운 불교관련행사와 함께 구성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종단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10월 1일경으로 연기되었다가 실제 개관은 11월 14일에 가서야 이루어지게 되었고, 앞서 계획된 여러 가지 부대행사는 모두 취소되고 역사기록전시회만 남게 되었다.[5)]

이러한 전시일정의 변화 속에서 전시 준비에 있어 준비팀의 구성이

5) 역사기록전시가 기록관 자체의 단독행사로 기획되지 못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개관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되면서 전시일정 및 장소의 선정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현실적인 문제로 가장 크게 다가왔다. 전시회 기획단계에서는 총괄팀장 1명과 기존의 기록관 인력 2명, 외부 연구원 2명으로 팀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먼저 총괄팀장이 6월에 사직을 하면서 전체 팀 구성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준비팀으로 구성된 연구원 2명 중 1명은 7월에, 나머지 1명도 9월에 사직하게 되면서 연구원을 새롭게 구성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안정한 인력의 수급구조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파악·선별·구성하지 못하고, 계획적인 준비작업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최종 전시단계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기록관 인력 2명으로 전시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전시기법 및 소요비용에 대한 산정에도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 최초 기획단계에서는 약 4천만원(연구원 인건비 및 자문비 제외) 규모의 예산으로, 15일간의 기획전시를 계획하였다. 그러다가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설전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1층 로비의 양 벽면을 상설 기록물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은 약 7천만원 정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시공간의 협소함과 전시대상 기록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다시 기획전시로 변경되었다.

3. 전시대상 기록물의 선별

전시대상의 기록물을 선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중앙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전시대상 기록물은 원본만을 전시하였다. 중앙기록관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성립시기부터

의 행정기록을 대부분 소장하고 있다. 일제시기, 즉 조선불교조계종이 성립되던 시기의 기록은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었지만[6], 해방 이후의 기록은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이를 중앙기록관이 설치되던 시기에 일괄적으로 이관받아 정리하였다. 따라서 굳이 외부로부터 기록물을 대여 또는 기증받는 절차를 행하지 않고, 소장 기록물 중에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기록물만을 선별하여 전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일부 사진기록의 경우에는 그 원본 사진의 존재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출처를 파악하기 힘든 것도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기존에 간행된 각종 도록으로부터 재편집하였다.

기록물 선별의 두 번째 기준은 기록물의 역사성이다. 전시주제의 설정 및 전시대상 기록물의 선별에는 근현대불교사를 전공한 부천대 김광식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전시준비팀과 김광식 교수가 협의하여 전시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맞추어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기록물을 선별해내는 연역적 방식으로 기록물을 선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최근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각 업무담당자의 인터뷰를 토대로 기록물의 중요성을 판단하였고, 아직 이관받지 않은 기록물도 일부 수집하여 전시대상에 포함하였다.

세 번째 기준은 희귀성과 특이성이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기록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생산된 기록물의 경우에는 최초 또는 가장 오래된 기록물만을 전시대상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중앙종회 회의록의 경우, 당시 사안에 비추어 대단히 중요한 의사결정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종회 회의록만을 전시하는 것으로 결

6) 일제시기 총독부(학무국)와 교류한 기록의 상당부분은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하였다. 또한 역사적 사건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사회상 또는 종단상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전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전문적인 불교연구자만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가 아니라, 일반 신도 또는 기록에 대해 관심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였으므로 특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다.

선별에서 마지막으로 기준을 삼았던 것은 대중의 호감도이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전시회의 주요 관람객을 일반인으로 상정하고 전시회를 준비하였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지는 않더라도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전시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성철스님의 경우에는 신도가 아니더라도 한두번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선승이므로, 이와 관련된 기록물을 전시하여 대중의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2005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전시대상 기록물을 약 300여점 선별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약 150여점의 기록물을 전시하였다. 이는 전시공간이 협소하고, 보안상 많은 기록물을 전시하는데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다.

전시대상 기록물 선별작업시에는 원본 기록물철의 위치에 간지를 사용하여 기록물의 제목을 표시해 두고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전시 이후 기록물의 원본 질서를 되찾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기록물철이 전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록물 보존상자에 선별된 기록물철의 위치를 표기해 두는 방법으로 원본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선별된 각각의 기록물에는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각각 개별 수납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최종 선별되어 전시된 기록물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1부; 되돌아보는 조계종의 숨결

〈사진 3〉 '1부; 되돌아보는 조계종의 숨결'에 전시된 각종 기록물

근대불교의 여명; 저항과 수호

여기에서는 주로 해방 이전의 기록물을 전시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록물 선별을 연역적으로 접근한 결과, 전시주제에 비하여 전시할 수 있는 기록물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연대미상의 기록물과 일제시기에 간행된 불서(佛書)를 전시대상에 포함하였다.

주요 전시 기록	내 용
승적부 철 성철스님 승적부	일제시기 각 사찰별로 거주 승려의 각종 이력사항을 파악한 기록
태고사 토지대장(각도분)	1941년4월 조계종단의 총본산으로 태고사(현 조계사)가 출범하면서 전국 각 사찰의 토지를 기부 받고 이를 기입한 기록
사찰령	조선총독부에서 제정•공포한 사찰령사본(1911)
적산사원 관련기록	일본이 패망하면서 남겨진 일본인 사찰(적산사원)의 재산 처리에 관한 기록
사찰주지조견표	각 시군별로 소재한 사찰과 해당사찰의 주지를 기재한 표(연대미상)
각해일륜, 유마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일제시기에 출간된 불서(1930~1942)

〈표 2〉 '근대불교의 여명; 저항과 수호'에서 전시한 주요기록물

해방; 불교정화의 첫걸음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 불교의 정화를 위해 활동하던 시기의 기록물을 전시하였다. 정화를 위한 각종 대회의 회의록과 불교전통의식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기록, 불교재산 정비를 위한 기록들이 다수를 이루었다.

주요전시기록	내용
전국승려대회 회의록	광복 직후, 교정기구, 불교재산통합, 모범총림 창설, 교헌, 광복사업, 임시예산 등의 안건 심의를 위해 개최된 전국승려대회 회의록(1945)
사찰령폐지에 관한 건	사찰령이 폐지되어도 불교계의 자치 조직이 완성되어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문교부장관의 회신공문(1946)
사찰경제 대책위원회 제1일 회의록	회칙제정, 사찰재산 및 교구재단, 토지 매각 처분, 산림 벌채 등의 문제를 논의

안거성만 보고서	월정사 금강선원에서 동안거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종단에 보고한 기록(1947)
부인선원 안거에 관한 건	해인사 국일암에서 비구니, 여성신도가 함께 참선수행을 하고 그 결과내용을 종단에 보고한 기록(1947)
교도의범	8.15 해방 직후, 불교의식, 부처님에 대한 예의범절, 행사시에 부르는 찬불가등을 정리한 기록(1948)
전재실태조사서, 출장복명서	조계종단 재산으로 관리되었던 대광유지(목포 소재)가 6·25 전쟁으로 인해 입은 피해 실태조사서(1950) 및 출장복명서(1952)
사무분장표	1950년대 조계종 총무원의 조직구성을 알 수 있는 기록

〈표 3〉 '해방; 불교정화의 첫걸음'에서 전시한 주요기록물

불교정화; 원융과 화합

한국전쟁 이후부터 통합종단이 성립되기 직전까지의 활동에 대한 기록물이 주를 이루었다. 당시 불교의 대내외적으로 통합종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고, 불교계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통합종단을 위한 많은 활동들이 있었다. 이러한 기록들이 소실되지 않고 대부분 중앙기록관으로 이관되었다.

주요전시기록	내용
불교정화운동 통계표	회견, 당국 방문횟수, 시위행렬, 대통령 유시, 경무대 방문 횟수 등 불교 정화운동과 관련된 각종 통계가 정리된 기록(1954)
독신승려명단	당시 내무부 치안국 주도로 전국 독신승려를 조사한 명부(1955)
전국승려대회기록	1955년 8월2~5일 개최되었던 전국승려대회 기록. 식순, 참가자 명단 등으로 구성.
회의록철	불교 정화운동이 본격화되던 1955년7월16일 이후, 조계종 총무원의 정화불사 관련 각종 회의록을 모아 놓은 철.
대한불교조계종 각도종회 회의록	정화가 완료되어 출범한 각도 종회의 회의록(1955)
정기종회 회의록(제1회)	불교 정화운동이 전국승려대회(1955)를 기점으로 일단락된 후 비구승 중심으로 재편된 최초의 종회 회의록(1956)

사암실태조사서	조계종 총무원에서 불교 정화운동 이후 서울, 충남, 충북소재의 사찰 및 암자의 현황 및 소속을 조사한 자료
전국사찰통계대장	불교정화운동이 일단락되고, 당시 비구승단으로의 사찰 인수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1956)
불교정화기념관건축취지문	1957년 조계사 경내에 정화불교기념관을 건축하면서 이에 대한 취지를 밝힌 글
등록신청서 (비구승단)	비구승단측에서 문교부에 제출한 종교단체 등록신청서(1961)
건의안	종단 내부의 승풍기강 확립 및 정상적인 감찰원의 위상 확립을 강력히 촉구한 건의서(1961)
건백서	승단의 분규로 사회정의 구현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비구· 대처 양측의 합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문건

〈표 4〉 '불교정화; 원융과 화합'에서 전시한 주요기록물

통합종단과 개혁

1962년 통합종단이 성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불교와 조계종의 모습을 중심으로 기록을 전시하였다. 1962년 통합종단을 등록했던 등록서류철을 비롯하여, 불교종합회관 건립에 관한 기록, 1994년 개혁회의 기록 등 불교현대사를 조명하는데 대단히 유의미한 원본자료들을 중심으로 전시하였다.

주요전시기록	내용
불교재건위원회 회의기록	비구•대처 양측이 불교정화, 종단 재건을 논의(1962)
건의안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를 비구•대처 각 25명씩 선임할 것을 건의한 문서(1962)
등록서류철	통합종단이 발족하면서 문교부에 사회단체로 등록한 서류철(1962)
종정취임등록 신청서	통합종단 제2대 종정으로 취임 시, 정부에 제출되었던 서류. 신청서, 승낙서, 이력서, 호적등본, 신원증명서, 신원진술서, 종회회의록 등 구비 서류양식을 알 수 있는 기록(1966)

불교종합회관건립 의건 발의서	총무원 청사로 이용되었던 불교종합회관 건립을 요청한 기록(1967)
해인총림운영에 대한 건	통합종단 이후 종단차원에서 설립된 해인총림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 해결을 요청한 건의문(1967)
하안거·동안거 방함록	안거에 참여한 스님들의 각 소임을 정리하여 놓은 명부
총무원장 임명장	종정이셨던 성철스님이 법전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임명한 임명장.
1991년 종단 재건 구상	1994년 종단개혁 불사 이전에도 종단 내부에서 종단개혁 검토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1991)
종단개혁안 초안 종헌자료집 종단개혁 불사 백서	1994년 종단개혁기에 발간되었던 각종 종단개혁관련 자료집
종단개혁 불사 계획표	종단개혁을 이끈 조계종 개혁회의가 종단개혁의 추진일정, 계획, 내용을 정리한 기록

〈표 5〉 '통합종단과 개혁'에서 전시한 주요기록물

2) 2부; 조계종과 우리의 삶

앞의 1부가 "조계종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제 2부 '조계종과 우리의 삶'에서는 종단의 문화적인 측면과 활동상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대체로 부서의 업무활동을 통해 생산 또는 접수된 기록이 각각의 주제에 따라 시리즈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함께하는 불교

조계종이 사부대중과 함께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 기록을 소개하고자 하였고, 이에 부처님오신날(봉축행사), 불교미술대전, 템플스테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에 맞춰 기록을 선별하였다.

분야	내용	주요 전시 기록
불교 미술대전	불교미술을 장려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획된 불교미술대전 관련기록	불교미술공모전 기본계획서(1969) 불교미술전람회 규정(1970) 팜플렛, 당선증 및 상장초안 등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오신날 행사 관련 기록	석존강탄절 기념봉축행사 기록(1947) 부처님오신날행사 초청장, 팜플렛, 행사아치 투시도
	부처님오신날 공휴일제정 관련기록	부처님오신날 공휴일제정 건의서(1963), 취지서 및 청원서명부(1974)
템플 스테이	각종 홍보자료	각국 언어로 발간된 템플스테이 홍보자료
	템플스테이 관련 자료	교육자료집, 학술세미나 자료집

〈표 6〉 '함께하는 불교'에서 전시한 주요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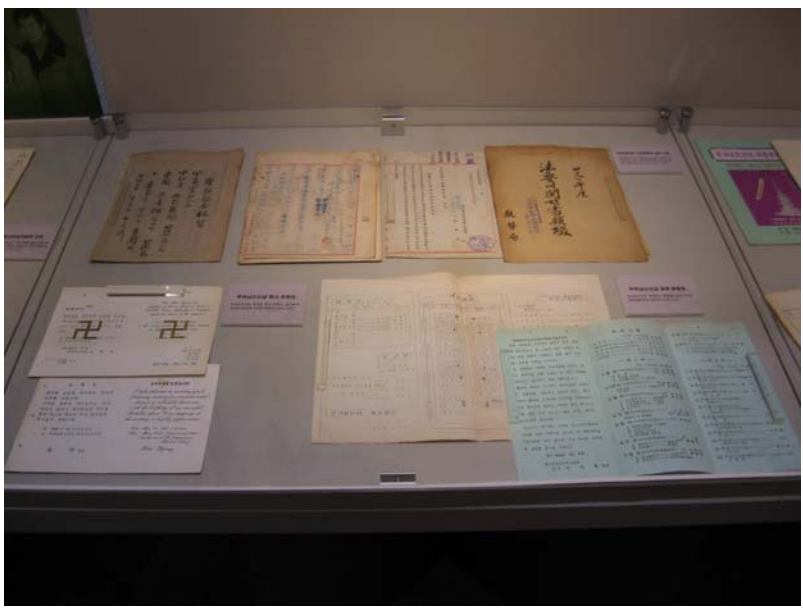
행동하는 불교

불교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들 중에서 '사회복지'와 '환경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선별하였다. 대체로 1994년 개혁불사 이후의 기록이 주를 이루었다.

분야	내용	주요 전시 기록
사회 복지	사회복지재단 법인설립	사회복지재단 법인설립 발기인 회의록(1994) 및 인가증(1995)
	불교자원봉사운영사업	자원봉사단 운영계획 및 규정(1995)
	불우이웃지원사업	탑골공원 노인공양행사 계획서(1996)
	공공시설운영사업	노숙자수용시설 보현의집 개설 계획서(1998)
	사회복지조사연구사업	교계복지시설 조사기록 및 한국불교사회복지편람
환경	사찰환경 개선 및 침해에 대응하기위한 위원회 구성	사찰환경정화위원회의 내부 문건 및 사찰환경 실태조사 대책안(1973) 사찰환경보존위원회 계획안(1996)

	환경친화적 풍토 조성	제 23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 청정국토 한마당 행사 기록(1995) 무질서한 방생문화를 재정비하기위하여 제작한 방생 지침서 및 자료
	환경정책 및 제도개선	지리산 댐건설에 대한 입장표명 및 결의문(2000) 새만금 간척사업 중지 촉구 결의문(2001) 북한산, 천성산, 금정산 개발 등에 대한 노무현정부 환경정책 이의 기록(2003)
	사찰환경 침해 대응	가야산 국립공원 내 해인골프장건립 취소 진정서 및 기안지(2000)

〈표 7〉 '행동하는 불교'에서 전시한 주요기록물



〈사진 4〉 '2부; 조계종과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에 맞춰 전시된 기록물

통일을 지향하는 불교

조계종은 1989년부터 민간단체로는 거의 최초이자 유일하게 대북교류사업을 시작하였다. 1989년에는 교류촉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후 신계사 복원 추진, 남북 불교도 회담 등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분야	내용	주요 전시 기록
기구	남북교류 기구	남북불교 교류촉진특별위원회 개최기록(1989) 남북교류와 통일운동 전담을 위해 설립한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설립준비 기록과 팜플렛(2000)
지원사업	대북지원사업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에 관한 한민족공동체 생명나눔운동 추진계획안(1999)
민족화합 기원행사	남북 불교도 동시법회	조국통일기원법회 개최 및 공동 발원문 봉독 합의서(1998) 남북 불교도 동시법회 공동 발원문(1998) 6•15공동선언실천,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 관련 기록(2001)
남북회담	남북불교도회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불교도 제2차 실무접촉에서 식량지원, 남북불교교류 확대, 북측 문화재 관람 및 전통사찰 현황제공 등의 내용을 체결한 합의문(1997)
통일정책	남북통일정책 연구활동	제 1차 불교지도자 통일포럼 기록 및 자료집(1998)
민족문화재 복원	금강산신계사 복원 및 북한사찰 단청 공동불사	금강산 신계사 복원 및 단청불사 공동사업에 관한 합의서(2003)와 확인서(2003) 및 단청안료 인수증(2004) 북한에서 개최한 단청세미나 초청장 및 관련 자료 *북측에서 보낸 단청도안과 북으로 보낸 단청안료

〈표 8〉 '통일을 지향하는 불교'에서 전시한 주요기록물

세계로 뻗어가는 불교

조계종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서 세계무대 속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개해왔다. 전시회에서는 국제단체와의 교류활동과 부처님 법을 세계 각지에 널리 전하고자 하는 전법•포교활동 관련기록을 위주로 선별하였다.

분야	내용	주요 전시 기록
국제단체 교류 및 연대	세계불교도대회 (W.F.B)	제4차 세계불교도대회 참석 초청장 및 대표파견 기록(1956)
		제 12차 세계불교도대회 한국대표 파견에 앞서 그 의의를 밝힌 고암종정 메시지(1978)
		세계불교도대회(W.F.B) 가입 회원국임을 확인하는 인증서 (2002)
	국제불교회의	콜롬보 불교회의 참가 회신 공문(1957)
	세계불교지도자 대회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 불교지도자 대회 목적과 전망, 일정표 및 관련기록(1970)
	한일교류	2차대전 희생자 추모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한일 우호 협정서 (1984)
	한•중•일 우호교류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 북경선언문(1995)
	한월교류	1963년 월남정부의 비인도적 정치를 규탄하고 불교도의 신앙의 자유 보장과 불교도의 즉시 석방을 촉구한 항의문 및 혈서(1963)
		상호 문화교류 추진 및 세계불교회 구성 촉진을 약속한 한•월 공동 성명서(1965)
해외불교 진흥	재일 홍법원 설치	일본지역 포교의 거점으로 커다란 역할을 한 재일 홍법원의 설치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협조의뢰를 기안한 내부문건과 그 발신 공문(1967)
		재일 홍법원 건립 경과 보고 및 후원 요청 공문(1967)
	재미 홍법원	재미홍법원의 개원 및 신도회 결성을 보고한 공문(1972)

	하와이 포교자료	하와이 한국불교 신도회 법회에 관련된 포교자료(1975)
	월남 지원	월남 난민구호 감사 서한(1975)
	스리랑카 지원	스리랑카 조계종마을 건립에 대한 스리랑카 총리의 감사서한(2003) 스리랑카 지진해일 재해 구호활동에 대한 스리랑카 대통령의 감사 서한(2005)
홍보	한국불교 홍보	한국불교를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 영문으로 제작한 팜플렛(1966)

〈표 9〉 '세계로 뻗어가는 불교'에서 전시한 주요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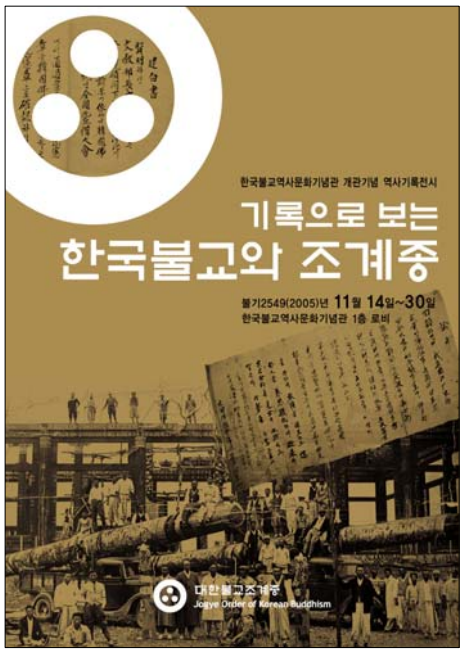
4. 전시 실무과정

전시업체와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은 후 전시회 개최까지 준비기간은 3주 정도였다. 그동안 진행한 대략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요기간	주요내용
촬영	1일	기록물 300여점 촬영 일부 사진류 스캐닝
포스터/리플렛	10일	초안작성→디자인작업→검토→수정(총 5회)→인쇄
도록	11일	사진촬영분 반영 발간사, 기록관소개, 일러두기, 목차 등 작성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배열/ 검토/ 수정) 인쇄
그래픽작업	3일	사진선별, 캡션작성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배열/ 검토/ 수정)
전시장설치	2일	유리벽/ 테이블/ 조명설치 유리벽에 그래픽 부착 기록물 배치

〈표 10〉 역사기록전시 작업 일정

도록(포스터, 팜플렛) 제작



〈사진 5〉 역사기록전시를 알리는 포스터

도록제작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기록물 촬영을 실시하였다. 전시업체에는 촬영대상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알려주지 못했고, 준비팀에서는 촬영기법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부분 단조로운 패턴으로 촬영되었고, 습자지에 작성된 기록물의 경우 글씨가 서로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기록물을 촬영할 경우에는 촬영 당사자는 기록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여야 하고, 기록물 제공자는 촬영기법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추었어야 했으나, 시간관계상 이를 충족치 못함으로 인하여 양질의 기초자료를 제작하지 못하였다.

촬영후 약 일주일간 이미지 밝기 및 선명도 보정작업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포스터와 리플렛 제작을 위한 작업을 하였다. 포스터와 리플렛의 이미지는 같은 패턴으로 제작하기로 하고 포스터와 리플렛의 형태와 내용 등의 초안을 만들어 전시업체에 제시하였고, 디자이너는 이를 바탕으로 포스터와 리플렛을 제작하였다. 최소한 전시회 개최 4~5일

전에 발송되어야 함을 감안하고 제작하였다.

그러나 도록제작에 있어서 전시업체에서는 촬영한 이미지를 시대순이나 내용순으로 전개하지 못하고 촬영순서 대로 바로 옮겨실어놓은 상태였다. 도록 제작을 개관일자까지 맞추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못하여 전시업체에서 직접 준비팀과 디자이너가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흐름이나 내용상의 연관성, 이미지간의 배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도록이 제작될 수밖에 없었다. 포스터(500부), 리플렛(1000부), 도록(1000부) 등 인쇄물제작에는 디자인비 및 편집, 인쇄비를 포함하여 총 17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시설 / 그래픽작업

역사문화기념관의 원 설계형태를 유지하면서 전시공간이 협소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기위해 전시벽면을 목공으로 제작하는 대신 유리벽을 설치해 쇼윈도우를 들여다보듯이 유리벽을 통해 전시대에 진열된 기록물을 살펴볼 수 있는 형태로 전시장을 설계하였다. 따라서 기록물은 유리벽 안쪽의 전시대에 진열하게 되었고, 전시대의 크기를 규격화된 제품보다 크게 제작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기록을 전시할 수 있었다. 60 여 평 규모의 1층 로비를 반으로 나눠 양쪽 벽면과 로비 중앙에 구조물을 세워 총 24개의 전시대를 설치하고 150점의 기록물을 전시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의 전시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설치된 유리벽에 시건장치가 미비하여 도난의 위험이 있었으며, 화재발생시 로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기록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었다.

한편, 실물기록이 아닌 사진자료는 기록물관람에 방해되지 않는 범

위에서 유리 벽면에 그래픽으로 처리하였다. 연대사 전시 부분은 역사적 의의를 갖는 사진을 시대 흐름에 맞게 배열하였고, 비교적 많은 양의 사진을 실었다. 주제별 전시 부분에는 정보 전달보다는 해당 코너에 대한 배경 이미지로 부합되는 것을 선별하여 꾸몄다.

〈사진 6, 7〉 전시에 사용된 각종 전시기법

또한 연대사 전시 부분은 난색 계열, 주제별 전시 부분은 한색 계열로 구분하고 점점 짙은 색으로 표현하는 등 유리벽면 그래픽 색채에 변화를 주어 주제별로 구분을 두고자 하였다.

디스플레이

전시대 위에 진열되는 기록물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 폼보드를 받치고 그 위에 기록물을 진열하였으며, 낱장 형태의 기록물이 많아 투명 아크릴재질의 문진을 활용하여 고정시켰다.

그러나 일부 관람객들로부터 볼륨감 없는 기록들을 평면으로 나열하여 획일적이고 단조롭다는 평이 있었다. 전시기획 단계에서부터 준비팀에서는 기록물 진열 기법을 다양화하여 기록물 진열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제 행정기록물을 전시하는 상황에서 박물관 전시처럼 다양한 형태의 전시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남는다.

〈사진 8〉 기록물 디스플레이의 예

한편, 기록물은 상세한 설명이 없으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시기록에 대한 캡션이 가급적 상세히 기술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한정된 지면에 모든 설명을 기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수차례의 자문을 거쳐 가장 정제된 문장으로 표현하였으며, 기술(記述)상의 부족함은 도록으로 보완하였다.

연표

한국불교사 중에서 근현대시기에 국한하여 연표를 제작하였으며, 조계종단의 설립 이후에는 조계종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895년 승

려의 도성출입 허용 시기부터 2005년 11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개관까지 약 100여년의 시기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나열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자문을 받고, 문구를 수정하였다. 또한 불교사 정리에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은 피하였고, 근현대 한국불교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들만을 추렸다. 실제 전시에서는 주요사건에 사진을 첨부하여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는데 이해를 도왔다.

〈사진 9〉 전시장 입구에 설치되었던 연표

영상물

평면적인 기록물 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대의 PDP TV를 설치하고, 조계종 활동상 및 역대종정스님에 대한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상영하였다.

〈사진 10, 11〉 전시장에서 동영상이 상영되고 있는 장면

◇역대 종정스님 플래시

종정이란 조계종단을 구성함에 있어 가장 상위에 위치한 불교계의 상징과도 같은 큰스님이다. 현재까지 14분의 종정스님이 계셨으며, 이 분들의 간단한 약력과 사진을 조합하여 플래시로 제작하고, 전시기간 내내 상영하였다. 많은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었다.

◇조계종 활동모습 동영상

부처님오신날행사, 자비의 탁발행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상량식, 재가불자의 단기출가 장면 등 종단의 활동상을 담아놓은 영상자료를 선별하여 영상물편집업체에 의뢰하여 제작·상영하였다. 영상자료 선별과정에서 종단활동과 연관관계가 높지않은 일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시주제의 선정이나 영상물의 제작에 있어서는 작은 부분이더라도 조직적 차원에서 내용을 조율하여 전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수막 및 배너

외부현수막 및 가로등배너는 기록물전시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좋은 홍보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취임식 및 개관식과 맞물려 전시회가 개최되면서 준비한 배너를 모두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소속된 기관의 여러 행사와 함께 전시회를 진행할 경우 배너의 게시 여부 및 위치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5. 전시경과

전시와 관련하여 불교방송에 단신으로 소개되었으며, 불교신문, 현대불교, 중앙불교 등의 교계지에 기사화되었다. 이 밖에 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에서도 전시모습을 촬영하였다.

종단 근현대사 자료공개 전시 의미

"……기록물의 소중함을 교단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교단관련 기록물관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그동안 종단소요 때마다 많은 기록물들이 유실되고 분실돼왔다. 다행이 중앙기록관의 설립으로 기록물 분실 우려가 사라진 것은 사실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록물은 자체로도 의미를 가지지만 연구를 통해 역사성과 의미가 밝혀질 때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이다.

이번의 공개를 계기로 근현대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붐이 일고, 실제 연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학술연구를 통해 지난했던 시기에 교단이 걸어왔던 길을 밝혀, 현대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 되도록 활용될 때 기록물은 더욱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표 11〉〈불교신문〉 2005.11.25일자 사설

종단 기관지 “불교신문”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기록물 전시를 홍보하였으며, 전시기록의 기사화를 위해 약 60여점의 기록물에 대한 열람·복사 서비스 요청하였고,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2회에 걸쳐 신문에 소개하였다. 불교신문을 통해 기록관의 사명, 소장기록물의 소개 및 중요성 등을 홍보할 수 있었으며, 조계종보 12월호에 역시 전시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하여 불교계에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었다.

전시장을 직접 찾은 관람객은 하루 평균 100~150여명 정도였으며, 인근 조계사를 비롯한 각 사찰 신도, 업무상 종단을 찾은 스님과 산하단체의 임직원, 인근 회사원 등 다양했다.

한편, 불교계는 물론,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연구원, 연세대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 및 각 학교의 기록관리학과 등에서 전시 관람 및 기록관 시설 견학을 하였다.

6. 맺음말: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현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제 단체, 기관에서도 기록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물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록관에서도 기록물전시는 주요업무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각 기관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홍보하는데 기록전시회가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각급 기록관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이 모기관의 역사에 비하여 소략하거나,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전시회

를 급하게 개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럴 경우, 모기관에서 생산하지 않았지만 모기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기록물을 외부로부터 대여 혹은 복사하여 전시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록물과 크게 관련이 없는 일반 박물류로 기록전시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기도 하였다.

조계종 중앙기록관의 경우에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외부의 기록물이 아닌 실제 중앙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거나 최소한 모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전시대상으로 선별하였다. 따라서 이번 전시회는 명실상부하게 중앙기록관 소장 기록물전시회라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전시 대상기록물의 원본성을 담보해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는 종단의 기록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전문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을 널리 알리고, 조직 내 기록관의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기록물 중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반인의 시각에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물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 기록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별한 많은 기록들 중 나름의 우열을 가려 일정부분만 전시를 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종단 내외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중앙기록관과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준비 부족에 따른 시행착오도 몇 가지 있었다. 이를 극복한다면 후일 보다 나은 기록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록전시회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기록전시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전시회에 있어 일부 관람객은 기록물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박물류가 없음을 지적하

였다. 이는 기록전시회에 대한 홍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까지 기록관, 기록관리 혹은 기록전시회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전시회를 개최하다보면, 일반인은 박물관 전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박물류와 같은 입체적인 전시회에 익숙하다보니 평면적이고 단조로울 수 있는 기록물전시회를 다소 생소하게 여겼다. 기록전시에 대한 많은 사전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둘째, 기록물을 전시함에 있어 관람 동선을 명확하게 표시해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기록관이 자체 상설전시실을 확보하는 것은 아직 요원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 대체로 건물의 여유공간을 이용하여 전시를 하게 되는데, 이 때 전시장의 이동 동선을 명확하게 표시해주지 않으면, 기록물 전시 관람에 혼동을 초래하게 된다. 중앙기록관의 기록전시회의 경우, 전시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건물 로비 중앙에 인공적인 구조물을 세워 공간을 양분하였기 때문에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동선을 따라 기록물을 관람하도록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더욱이 전시공간이 기념관의 현관과 바로 연결된 로비에 위치하고 있고, 업무부서로 가는 통로로 사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간을 차단하고 동선을 유도할 수 없었다. 바닥에 동선을 표시하고 홍보 리플렛에 전시장 투시도를 그리는 등의 보완을 하였지만, 전시기획 의도대로 동선을 따라 관람객이 이동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셋째, 전시공간 및 전시 대상기록에 대하여 촬영하고 향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간·공간 관계상 전시회를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기록전시회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할 수 있고, 이를 기록관의 홍보에도 이용할 수 있

다. 중앙기록관의 경우, 내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각 교구본사별 기록관리 실태점검 시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시회의 경험을 좀 더 발전시킨다면, 주제별로 보다 상세한 전시회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조계종단의 가장 큰 행사인 '부처님오신날' 주간을 맞아 관련기록 전시를 하고 그로써 종단 내 기록관의 위상을 높이고,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별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전국의 주요사찰에 순회전시를 계획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순회전시는 종단 전체의 기록관리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여건이 허락한다면, 상설전시실을 마련하고 기관 방문객을 위한 견학코스로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기록전시회를 통하여 기록관이 단순히 기록을 보존하는 곳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식정보 문화공간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Archival Exhibition organized by the Archives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 Korean Buddhism and Jogye Order through the archives -

Kim, Jae-Hun / Lee, Kyung-Hoon

The ultimate purpose of records management is for reference service. Archival exhibition provides an opportunity to raise the public's interest at archives and maintain records management and to offer the reference service to unknown users. As for archivists, archival exhibition allows to summarize generally the archives that he may have and to appraise its value.

At the opening of the Memorial hall for the history and culture of Korean buddhism, the Archives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held an archival exhibition by showing archives of Korean Buddhism History to the public.

The exhibition mainly consists in 2 themes: History of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and its activities. Over 300 archives were selected in accordance with historicity, rarity and particularity of each archives that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posses.

The present paper aims to suggest different models of Archival Exhibition with the help of detailed explanation on Exhibition planning, Selection of archives and the practice

Key words : Outreach program, Reference service, Archival exhibition, Exhibition planning, Selection of archives, Exhibition practice